

전체 흉부 X선사진에서 5개 부위에 대해서 농도 측정한 결과는 폐야부분은 1.71로 나타났으며 농도 변화가 심하였다. 그외의 부분은 농도부족으로 인하여 측정이 곤란하였다.

4. 결 론

21개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흉부 X선사진을 평가하여 그 정도관리를 한 결과, 20개 기관에서 선질이 부족하였으며, 환자 호흡불량이 19개소, X선 선량의 과도 및 부족이 16개소, 환자의 위치잡이 불량이 13개소, 관전압과 격자의 조합 잘못이 11개소, 현상처리 잘못이 8개소, 조사시간의 조정불량이 7개소로 나타나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3> 슬개골 Tangential 촬영을 위한 보조기구의 제작

서울중앙병원 진단방사선과

장용철 · 박영성

인체에서 가장 큰 관절인 슬관절은 하지에 가해진 모든 외력이 전, 후, 좌, 우 회전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달되는 관계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관절이며 많은 연부조직들로 형성되어 안정성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외상이나 기타 원인들에 의한 많은 슬관절 질환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이의 진단을 위해 과거부터 단순촬영 뿐아니라 관절조영술 등 많은 방사선검사가 시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CT, MR 등으로 인해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 슬개대퇴관절을 잘 보기 위한 skyline view에 관해서도 Settegast 등에 의해 많은 방법들이 소개되어 왔으나, 본 과에서는 직접 보조기구를 제작하여 임상에 적용시켜 촬영해 보므로써 다음과 같은 진단효과를 얻었다.

- 1) 환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촬영의 편이함과 일관성이 있다.
- 2) 슬개대퇴 관절면의 묘사가 뛰어남으로 인해 sulcus 및 congruence angle의 측정이 용이하다.
- 3) 슬개골의 탈구, 아탈구 및 연골연화증 등의 진단에 우수하다.